

제7

(I)

(1교시)

- ▶ 자연과학적 공간과 대비되는 문화적 공간의 개념 : ‘의미’의 이해
- ▶ 공간에 대한 문화론적 탐구 : 형태학, 현상학, 계보학, 사건의 계열학에 대한 이해
- ▶ 『천의 고원』과 『의미의 논리』를 통한 들뢰즈 방법론의 이해

▷ ‘의미’를 둘러싸고 제시된 다양한 현대 철학의 방법론들

* 의미란?

- 현상학 : 인간의식이 자기의 주관적 체험을 통해 구성해 내는 것.
- 해석학 :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통해 나타나며, 현실의 텍스트는 의미를 함축. 숨은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.
- 구조주의, 기호학 : 의미하는 것(기표)과 의미되는 것(기의)으로 구분. 기호의 속성을 그들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.
- 마르크스, 푸코, 들뢰즈 등 (담론 discourse) : 권력과 사회, 역사를 매개.

▷ 공간과 의미

* 과거 연구에서의 공간

- 정태적. 기하학이 공간 분석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.
- 이분법적 탐구 : 자연과학에 의한 이론적 탐구와 예술에서의 실천적 탐구.

* 근대적 의미의 공간

- 공간과 의미 사이에 사건이 존재한다.
- 문화적 공간에 대한 이해 : ‘사건이 발생하는 공간’ 현실공간은 사물들, 성질들,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사건은 의미를 동반한다.
- 최근 조형문화의 경향 : 공간에 ‘사건’을 배재하지 않으려 노력.

▷ 형태학, 현상학, 계열학

* 공간에 대한 문화론적 탐구

- 형태학(morphologie) : 형태(morphe)를 연구하는 것. (생물학, 언어학, 건축학 등)
- 현상학(phenomenologie) :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주관적 체험에 초점을 맞춤.
- 계열학 : 사건들의 계열 및 그로부터 생겨나는 의미를 다룸.
⇒ 어떤 사물에 대해,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의 물리적 바탕(기,氣)을 배재하고 순수 기하학적 형태로 보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.

* 문화적 맥락의 고려

- 풍수(風水) : 산수(山水)의 형태는 기의 본성을 발현. ∴ 형태만 뽑아 기하학적으로 볼 수가 없다. ‘인간 주관의 기(氣)’ 및 ‘의미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기’를 다룸. 동기감응론(同氣

感應論).

- 기능주의와 현상학

“형태는 기능을 따른다.” :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건축의 예.

시선의 현상학(메를로 폰티) : 눈길, 시선(視線)은 공간론과 현상학의 가교가 된다.

(2교시)

▷ 공간의 계보학

* 공간의 정치, 욕망, 법, 경제 등에 관한 연구.

1) 역사에서의 예

- 일제 시대의 공간 구조

- 귀족 시대로부터 부르주아 시대로 이행기의 공간의 변화

- ‘태양왕’ . 루이 14세의 눈길에 맞추어 설계된 베르사이유 궁전.

2) ‘파놉티콘(Panopticon)’ : ‘보이지 않는 시건’을 권력화 한 최초의 장치로서의 원형감옥. 이 장치의 핵심은 죄수의 방은 밝게 유지하되 중앙의 감시탑은 어둡게 하는, ‘시선의 비대칭’에 있다. 푸코는 이를 ‘권력의 시선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속성’으로 풀어냈다.

사진10 파놉티콘 설계도

3) 푸코의 철학은 ‘공간론’이다.

- 『광기의 역사』에서의 수용소, 병원의 공간

- 『임상의학의 탄생』에서의 눈길의 고고학

- 『말과 사물』에서의 ‘에피스테메’라는 인식 공간

- 『감시와 처벌』에서의 감옥의 구조

▷ 사건의 계열학의 기초(→들뢰즈의 사건의 존재론을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감)

* 『의미의 논리』에 나타난 들뢰즈의 ‘사건의 존재론’

- 생성의 철학(니체, 베르그송, 하이데거 등)과의 대비

1) 공통점 : ‘S is P’라는 논리학에 기반한 서양전통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 함. 기본적으로 탈명제적, 탈판단적인 생성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.

2) 차이점 : 생성이 흐름이라면, 사건은 그 흐름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. 들뢰즈의 철학은 생성자체가 아닌 생성 속에서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사건에 주목한다.

⇒ 인간의 삶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성뿐 만아니라 그 안에서의 상대적 차이에 주목, 의미를 탐구하는 ‘사건의 철학’이 필연적이다. (구조주의와 생성철학을 통합한 ‘사건의 존재론’)

(3교시)

▷ 구조주의,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들뢰즈

- 구조주의 : 자연과학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문화의 법칙을 찾으려 함. 보편성을 추구.

- 포스트모더니즘 : 객관적 실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보편성을 부정. 다양성, 차이, 타자를

강조.

⇒ **의미의 실재론을 거부**한다는 공통점을 지님. (**기표**와 **기의**의 개념) 단, 구조주의는 기표들의 시스템을 중시하는 반면, 포스트모더니즘은 기표들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**의미의 불확정성**을 추구한다. (예, **마그리트**의 그림)

사진11 마그리트, <이것은 사과가 아니다>

- 들뢰즈는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이에 존재. (cf, 리오타르, 데리다)
- ⇒ 사건의 개념 : 물질의 흐름, 기의 운동으로부터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과 더불어 의미가 나온다. (**유물론적**, **구조주의적**, **계보학적**)

▷ 특이성(singularity)

- 들뢰즈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**시공간의 복합체 속에서 발생하는 특정 ‘사건’**을 말한다. 즉,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잡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.
- 건축에서의 특이점의 배치 : **피터 아이젠만**은 들뢰즈의 『주름』의 영향을 받음. “어디에서 꺾을 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.”

사진12 피터아이젠만 <주택10호 모델>

- ⇒ 특이성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사의 기본적 개념.
- ⇒ 결국, 들뢰즈/가타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떠한 배치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. 탈주의 개념. 흙 패인 공간에 갇히는 것을 경계.